

‘착한 과금’ 말장난... 엔씨 신작 ‘아이온2’ 흥행 역풍

‘영혼의 서’ 쿠나 안 판다더니 패키지 포함... 게임팬 우롱
출시 첫날 2시간 동안 접속장애 대란... 캐릭터 먹통까지
말썹 생기자 긴급 사과 방송... ‘패키지 중단·보상’ 밝혀

엔씨소프트(엔씨)의 신작 ‘아이온2’가 출시하자마자 유료 아이템 관련 논란을 일으켰다. 엔씨가 유료 아이템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만큼 출시 초 유료 아이템 논란이 흥행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엔씨는 19일 아이온2를 출시했다. 엔씨소프트는 한 때 PC방 점유율 1위까지 올랐던 인기 IZ식재산권(IP) ‘아이온’의 후속작으로 올해 지스타에서도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아이온2는 출시 전부터 모바일 양대 앱마켓 인기 순위 1위를 차지했으며 PC방 게임 순위 6위에 오르며 초반 흥행에 성공했다. SOOP과 네이버 치치직과 유튜브 등에서 진행되는 아이온2 인터넷 방송 시청자도 30만 명 이상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출시 하루 만에 사업 모델(BM)

논란이 터지며 장기 흥행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문 부호가 붙고 있다.
엔씨가 서비스하는 MMORPG 게임들은 이전부터 과도한 현금 결제 유도로 비판 받아 왔다. 실제로 엔씨가 신작을 내놓을 때마다 BM이 먼저 언급됐고 엔씨 역시 최근 출시되는 게임에서는 ‘착한 과금’을 키워드로 내세웠다.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영혼의 서’라는 아이템이다. ‘영혼의 서’는 장비 옵션 강화와 관련된 아이템으로 메이플스토리의 ‘큐브’와 비슷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남준 아이온2 개발 PD는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 영혼의 서는 인게임에서 획득 가능하며 쿠나(인게임 캐시 통화)로 판매하지 않겠다고 했다. 김 PD의 해명은 영혼의 서를 현금으로 판매하지 않겠다는 설명으로 받아들여졌다.



엔씨의 MMORPG 신작 ‘아이온2’와 ‘아이온2’ 플레이 화면(작은 사진).

엔씨소프트-연합뉴스

그러나 영혼의 서 아이템이 현금으로 판매되는 패키지에 포함됐다는 것이 알려지며 논란이 커졌다.
엔씨는 라니지W 출시 때도 현금 판매 제화와 관련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엔씨는 라니지M에서 경험치 보너스 등을 제공하

는 ‘아인하사드의 축복’ 시스템이 비판받으며 라니지W에는 아인하사드와 비슷한 별도의 시스템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경험치 증가 효과가 쫓겨 달려 있는 것이 확인되며 논란이 됐다.
엔씨가 이용자들에게 거짓말을 한 것은



플레이하기 어려워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 외에도 게임 출시 이후 2시간 동안 접속 장애가 발생해 다수 이용자가 대기해야 하거나 사전 캐릭터명 예약을 했는데 실제 캐릭터를 생성하지 않으면 게임을 플레이할 수 없는 등의 문제도 있었다.
아이온2 개발진은 오후 3시 긴급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고 사과했다. 논란이 된 패키지는 판매를 중단하고 보상을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스킬 초기화 비용과 소모품 가격 및 지역 퀘스트 보상 등을 조정했다. 또한 접속 관련 문제를 임시 점검을 통해 해결하기로 했다.
김 PD는 “접속 불가임에도 계속해서 기다려주셨던 분들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을 꼭 드리고 싶다”며 “빠르게 처리하고 싶었으나 원인 파악이 너무 늦어 이렇게 된 점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양준규 기자 jgyang@skyedaily.com

한국서 번 순이익보다 배당금 많이 챙긴 코스트코

미국계 초고형 대형마트 코스트코가 한국에서 거둔 순이익보다 더 많은 금액을 본사로 배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코스트코코리아는 2025년 회계연도(2024년 9월~2025년 8월)에 총 2500억 원을 배당금으로 지급했다고 전날(19일) 공시했다. 이는 전년(1500억 원)보다 1000억 원 증가한 금액으로 배당성향은 무려 121.3%에 달한다. 당기순이익의 206.2% 원보다 더 많은 금액을 미국 본사에 넘긴 셈이다.
코스트코코리아의 실적은 올해도 큰 폭으로 성장했다. 매출은 7조322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2.1% 증가하며 처음으로 7조 원을 넘어섰다. 영업이익은 2545억 원으로 16.5% 증가해 매출 증가율을 상회했다. 반면 당기순이익은 비용 증가 등의 영향으로 8% 감소(2062억 원)했다.
그러나 사회공헌 활동 규모는 이에 크게

미국 본사에 2500억 원 배당
기부금은 14억... 1%도 안돼



코스트코코리아는 2025년 회계연도에 총 2500억 원을 배당금으로 지급했다. 연합뉴스

못 미쳤다. 코스트코코리아가 같은 기간 집행한 기부금은 13억 9980만 원(14억 원)으로 당기순이익의 대비 0.68% 수준이다. 지난해 0.55%보다 소폭 올랐지만 여전히 업계 평균과 비교해 낮은 평가가 나온다.

특히 코스트코코리아는 미국 코스트코 출세일 인터내셔널이 100% 지분을 보유한 외국계 법인으로 국내에서 발생한 배당금은 전액 미국 본사로 송금된다. 올해 배당금은 코스트코 본사가 한국에서 회수한 금액 중 역대 최대 규모로 기록됐다.
한편 코스트코코리아는 지난해 5월 멤버십(연회비) 3종 가격을 최대 15.2% 인상하며 소비자 반발을 산 바 있다. 이는 같은 해 미국-캐나다 연회비 인상률(8.3%)보다 약 두 배 높은 수준이다. 연회비는 코스트코 수의 구조에서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핵심 수입원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한국 시장은 코스트코 글로벌 사업 중에서도 수익성이 높은 국가로 꼽힌다”며 “다만 기부금·사회공헌원 규모가 매출 대비 낮고, 과도한 해외 송금 구조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나윤 기자 nykim@skyedaily.com

韓 브랜드·亞 최초... 기아 PV5가 해냈다

‘2026 세계 올해의 밴’ 수상
심사위원 26명 전원 일치

기아 PV5(PV5-사진)가 상용차 업계 세계 최고 권위의 상을 수상했다. 기아는 19일(현지 시간) 프랑스 리옹에서 열린 세계 상용차 박람회인 ‘솔루트 트랜스’에서 PV5가 ‘2026 세계 올해의 밴’을 수상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수상은 세계 올해의 밴 34년 역사상 한국 브랜드 최초이자 아시아 전기 경량상용차로 최초 수상이라는 새로운 역사를 썼다.
세계 올해의 밴은 유럽 각국의 글로벌 경량상용차 전문 기자단으로 구성된 비영리 기관 IVOTY가 주관해 선정하는 경량상용차 업계의 가장 권위 있는 상으로 1992년부터 34년째 이어져 오고 있다.
2026 세계 올해의 밴은 올해 12개국 이상에서 판매를 개시한 경량용 차량 중 최종 후보에 오른 7개

차량 중 평가단이 직접 시승을 통해 △기술 혁신 △효율 △안전 △환경 △지속 가능성 등 다양한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됐다.
PV5는 최종 후보에 오른 글로벌 경량상용차 시장의 강력한 경쟁 모델들을 제치고 2026 세계 올해의 밴으로 선정됐다. 잘라스 스위니 IVOTY 잘라스 스위니 위원장은 “기아 PV5는 우수한 성능과 효율적인 전기 플랫폼과 사용자 중심의 설계로 심사 위원단에 깊은 인상을 남겼다”



전기상용차 기아

며 “26명의 심사 위원 전원 일치로 선정된 것은 PV5가 전기 상용차 시장에서 실용적인 혁신을 구현하는 새로운 기준임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호평했다.
기아 PV5가 기존 유럽 브랜드 중심의 경량상용차 시장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상을 거머쥐으로써 글로벌 시장 진입 초기 새로운 수요처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아는 2023년 ‘세계 올해의 고성능 자동차’ 부문 EV6 GT 수상을 시작으로 2024년 EV9가 세계 올해의 자동차와 세계 올해의 전기차’를 수상했다.
2025년에는 EV3가 세계 올해의 자동차를 수상한 데 이어 PV5가 세계 올해의 밴을 수상함으로써 4년 연속 세계적인 무대에서 전동화 모델 리더십을 인정받았다. 양준규 기자 jgyang@skyedaily.com

비쁜 일상 속, 당신을 토닥여줄 요가 에세이

느려도 괜찮아

아사나(요가 자세)를 할 때 찾아오는 고통은 말할 수 없이 아팠지만 몸을 늘리고 비틀고 거꾸로 서는 과정에서 마음이 말을 걸었다.

너무 애쓰지 마라.

괜찮다.

일만 하지 말고 좋아하는 것도 하고 살아라.

한영미 지음 | 272쪽 | 15,000원 | 도서출판행복에너지